

May 14 성경 묵상하기

• 누가복음 8:4-15

우리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 밭을 기경해 나갑니다. 마음의 둑을 제거하고, 딱딱한 심령을 부드럽게 갈아엎으며, 가시 떨기들을 걷어 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묵상은 말씀의 씨앗을 옥토에 떨구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와 마음 사이라고들 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머리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와 온몸에 전달될 때 삶이 변화됩니다.

비움보다 중요한 것이 채움입니다. 내 마음 밭을 깨끗이 소제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기 위함입니다. 묵상을 통해 참 비움과 채움이 이루어 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천지 만물의 순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구절은 66권 말씀의 핵심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

작은 씨앗 안에는 큰 나무가 될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내 안에 심긴 작은 씨앗이 빨아하여 자라가며 믿음의 거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묵상하면 믿음과 행동의 동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이길과 방향을 보여 주십니다. 묵상의 유익은 실제 묵상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 하지만, 악인은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들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순종하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시 1편).

나는 묵상의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까?

- ❶ 묵상을 통해 마음을 옥토로 가꾸고 있습니까?
- ❷ 나를 비워 내고 주님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